PVC제품, 연이은 반덤핑 피규제

AUS · 말레이지아에서 … 안이한 대처로 주변국 확산 우려

한국산 PVC 관련제품이 AUS와 말레이지아에서 각각 덤핑예비조사, 덤핑판정을 받는 등 PVC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있다.

PVC관련제품 반덤핑 피규제현황

구분	국가	내 용
93년 3월	인디아	-한국을비롯브라질, 멕시코, 미국, 아르헨티나 5개국에서수입되는 PVC제품반덤핑관세부과 (59.64달러부과)
94년 1월	인디아	-한국산 PVC수지에대해톤당 40.42달러반덤핑관세부과
94년 5월	대 만	-한국산 PVC첨가제 DOP에대한반덤핑조사
95년 6월	말레이지아	-한국, 타이, 싱가폴산, PVC바닥재덤핑조사
96년 1월	AUS	-PVC호모폴리머수지에대해 42%에달하는예비반덤핑관세부과
96년 1월	말레이지아	-95년6월덤핑조사에따라최저69%, 최대 114%의반덤핑관세부과

특히, 96년1월에만 연이어 제소되고 있어 정부와 관련기업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1월6일 AUS관세청은 AUS의 PVC 제조기업인 ICI와 오레온의 제소에 따라 한국산 PVC호모폴리머수지에 대한 덤핑예비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US의 덤핑예비조사는 94년7월이후 수입된 제품에 대해 소급 실시되고 있으며, 제소기업들이 주장하는 덤핑마진율이 4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지아도 1월26일, 그동안 조사를 벌여오던 PVC 바닥장식재를 비롯한 관련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 1월17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말레이지아는 95년 수입쿼터제를 폐지하고 반덤핑제도를 도입하였는데 95년6월부터 한국, 타이, 싱가폴산 PVC바닥재에 대한 덤핑조사에 착수, 이번에 고율의 관세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 PVC바닥재의 덤핑관세율은 최저 69%, 최대 114%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국내 PVC 생산기업인 LG화학과 한화종합화학은 통상산업부와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타개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공세가 미국, 유럽, 캐나다 등 선진국 중심에서 점차 멕시코, 브라질, 인디아, 대만 등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발도상국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공세를 점차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사례는 근래에 들어 자주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인디아는 93년3월 한국산 PVC수지에 대해 톤당 59.64달러, 94년1월에는 톤당 40.42달러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그리고 94년5월 대만에서도 폴리에틸렌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에 이어 PVC가소제 DOP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산기업들은 AUS와 말레이지아에서 반덤핑으로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소량, 저가품으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95년 AUS에 대한 PVC 수출량은 LG화학이 1500톤, 한화종합화학이 1000톤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말레이지아에 수출하고 있는 제품은 저가의 PVC 바닥장식재로 주력제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통상관계자들은 이같은 덤핑판정 시비가 있을 때마다 국내 생산기업들과 통산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여 점차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PVC 수출량은 95년 12만6000톤으로 94년 7만2700톤 대비 73.3%나 크게 신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내수요는 연간 5 7%대로 꾸준히 증가, 수출에 한계가 있으나 96년에도 수출이 17만톤에 이를 전망이다.

<화학저널 1996/3/11>